

교정 잘못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서적, 신문, 잡지, 광고지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쇄물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인쇄물을 보다 보면 오자(誤字)와 탈자(脫字)를 심심찮게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이는 잘못된 글자를 찾아내는 재미로 책을 읽는다고 한다. 또한ミス 없는 완벽한 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쇄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교정(校正)이 매우 강조되는 대목이다.

교정이란 교정쇄(校正刷)와 원고를 대조하여 글자·부호·배열·색 따위의 틀리거나 빠진 것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이다. 교정은 흔히 전문가가 보면 미스의 80%를 발견할 수 있고, 비전문가가 보면 60%밖에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교정은 반드시 한 사람이 보아서는 안되며, 2인 이상이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갖고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활자본을 교정 할 때는 보통 세 번의 교정 과정을 거쳤다. 처음 보는 교정을 초견(初見)이라 하고, 두 번째 보는 교정을 재견(再見), 세 번째로 보는 교정을 삼견(參見)이라 하였다. 교정을 볼 때는 붉은색(朱書)이나 묵서(墨書)로 표시했다. 주된 교정내용은 글자획의 굵기를 조절하거나, 글자 위치를 서로 바꾸는 상환(相換), 그림의 크기를 교정하는 것, 오자를 고치는 교정, 글자의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교정 등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교정 과정과 내용이 거의 같았다.

요즈음은 활자인쇄에서 컴퓨터 조판으로 바뀌면서 교정에 새로운 안목이 요구된다. 즉, 활자를 식자할 때는 한문의 경우 유사한 자로 식자하였으나, 컴퓨터로 식자하면서 모양이 전혀 다르고 음이 같은 자로 식자된다. 이는 식자의 방법이 바뀌면서 교정보는 방법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책을 만드는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1542년(조선 중종 37)에 편찬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의하면, 감인관(監印官), 창준(唱準), 수장(守藏), 균자장(均字匠)은 한 권에 한 자의 착오가 있으면 30대의 곤장을 맞는다.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을 더 벌받았다.

곤장이 30대

즉, 30대의 곤장을 더 맞게되는 것이다. 인출장(印出匠)은 한 권에 한 자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한 자가 있을 때 30대의 매를 맞고, 한 자가 더 할 때마다 벌이 한 등을 더했다.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이 틀렸을 때 파직되고, 창준 이하의 장인들은 매를 때린 뒤 50일의 근무일자를 깎는 벌칙이 적용되었다.

교정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하여 교정지에 교정을 본 사람과 균자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교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토록 활자 인쇄에는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앙관서에서 간행한 활자본에는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고 인쇄가 정교한 것이 그 특징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적 편찬 시 교정·보완을 위해 교정청(校正廳)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교정청은 1470년(조선 성종 1)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는데 교정관으로는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최항(崔恒)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에 의해 면밀한 교정이 행하여진 뒤 이듬해 경국대전 초간본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곧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 교정청에서 다시 130개조를 수정, 보완하여 1474년에 재판본을 간행하였다. 뒤에 재판본에도 추보할 내용이 생겨 1482년에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교정을 거듭하여 1485년에 최종적으로 완결판을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전하는 경국대전이다.

황정하 · 본지객원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실장)

